

미국 영화 <프로포즈>에 나타난 로맨틱 코미디의 장르적 관습과 관객의 반응

-한국, 미국 관객의 영화 수용 양상의 국적별, 젠더별 차이를 중심으로-
The Romantic Comedy Genre Conventions and the Audience's Reaction in
American Romantic Comedy Movie <The Proposal(2009)>

-focused on the Difference of Acceptance of Korean and American Audience by Nationality and Gender-

송민호, 염종희, 우정권
단국대학교 스토리텔링연구센터

Minho Song(gomsemary@gmail.com), Chonghee Youm(sunshineyoum@gmail.com),
Jeonggueon Woo(jgwoo8@hanmail.net)

요약

본 연구는 할리우드의 최근 로맨틱 코미디 영화인 <프로포즈(2009)>를 대상으로 하여 미국 할리우드 로맨틱 코미디 영화의 장르적 관습이 관객에게 수용되는 데 있어 관객의 국적이나 젠더가 그 수용 양상의 차이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가 하는 문제를 실증적으로 확인하고자 시도하였다. 할리우드 로맨틱 코미디 장르는 대부분 남녀 배우가 드러내는 매력을 중심으로 하여, 이들이 만나고 헤어지는 어느 정도 관습화된 플롯 위에 전개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 영화 <프로포즈> 역시 이러한 관습화된 플롯 구조를 한편으로는 따르면서, 한편으로는 변주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영화 <프로포즈>에 등장하는 '배우'와 '등장인물'이라는 요소와, 할리우드의 일반적인 로맨틱 코미디 플롯에서 '사랑의 완성'으로 제시되는 '결혼식'과 '프로포즈'라는 요소가 한국과 미국이라는 국적과, 남성과 여성이라는 젠더에 따라서 어떤 다른 선호가 나타나는가 하는 바를 관객 반응을 묻는 설문조사와 통계를 통해 살펴보고, 관객이 지향하는 가치들 사이의 상관성 분석을 통해 드러나는 의미를 해명하였다.

■ 중심어 : | 로맨틱코미디 | 장르적 관습 | 관객반응 | 젠더 | 문화적 수용 |

Abstract

This study is on Hollywood's latest romantic comedy movie <The Proposal(2009)>, attempted to identify whether nationality or gender difference of the movie audience is affecting on their acceptance to the genre characteristics of Hollywood's romantic comedy. Most of Hollywood's romantic comedy movies are centered on attraction of female and male actors and its' formulated plot (boy-meets-girl, boy-loses-girl, boy-gets-girl structure). Although the movie <The proposal(2009)> is following the formulated romantic comedy plot, it shows a variation from the typical romantic comedy genre. In this thesis, based on audience research data, statistics and interrelationship analysis on audience value orientation, we elucidate how Korean and American, Female and Male movie audience have different preference to actors and characters in the movie <The Proposal(2009)> and representation of archetypal Hollywood romantic comedy happy ending such as propose and wedding scenes.

■ keyword : | Romantic Comedy | Genre Convention | Audience Reaction | Gender | Cultural Acceptance |

* 본 연구는 문화체육관광부 및 한국콘텐츠진흥원의 2011년도 콘텐츠산업기술지원사업으로 수행되었음.

접수번호 : #130201-006

심사완료일 : 2013년 02월 25일

접수일자 : 2013년 02월 01일

교신저자 : 우정권, e-mail : jgwoo8@hanmail.net

I. 서론

1. 연구의 목적

영화 장르로서의 로맨틱 코미디는 영화사의 오랜 전통을 통해 가장 많이 선호되는 장르로서 관객으로 하여금 사랑이라는 판타지를 충족하도록 했던 장르라고 단언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할리우드에서 로맨틱 코미디 장르는 1930년대의 에른스트 루비치(Ernst Lubitsch, 1892-1947) 이래로 장르적으로 관습화된 것으로 간주되고 있으며[1], 이러한 로맨틱 코미디 장르는 여타의 많은 영화 장르에 비해서 주로 관습화된 정규적인 패턴을 따르는 경우가 많으며 이러한 패턴 밖으로 변주하는 예는 거의 드문 것으로 알려져 있다[2]. 따라서 기존의 로맨틱 코미디 장르에 대한 연구들은 주로 반복되는 패턴과 양식을 경험적이고 통계적으로 제시하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다[3]. 영화 내러티브 속에서 남녀 주인공들이 만나고 헤어지는 데 있어서 일정한 패턴이나 서사 전략이 존재하며 이것이 일종의 공식과 같은 이론으로 제시될 수 있다는 사실은 영화 장르로서의 로맨틱 코미디 자체가 얼마나 스테레오타입화된 것이며, 정해진 내러티브적인 경로 밖으로 잘 벗어나지 않는 성격을 갖고 있는가 하는 사실을 역설적으로 보여준다.

다만, 지금까지 로맨틱 코미디의 장르의 내러티브적인 관습을 설명하는 데 애써왔던 기존 연구들이 풍족한 것에 비한다면, 로맨틱 코미디의 관습화된 서사 전략들이 주로 어떤 대상의 판타지를 충족하고 있는 것인가 하는 문제는 그다지 적극적으로 해명된 바가 없었다고 생각된다. 일반적으로 로맨틱 코미디의 경우, 젊은 남녀의 로맨스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주된 관객 역시 그와 비슷한 연령대의 남녀 관객들의 판타지를 충족시켜주는 것으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과연 로맨틱 코미디의 주인공들에게 젠더(gender)적인 정체성을 넘어선 감정이입이나 공감이가 가능한가 하는 문제[4]라든가, 국적(nationality)의 차원, 예를 들어 한국, 중국, 일본의 남성/여성이 할리우드에서 생산된 로맨틱 코미디 영화 속의 백인 남성/여성이 벌이는 연애 서사에 감정이입하여 자신의 서사라고 간주하면서 영화의 스토리를 받아들일 수 있는가 하는 문제는 여전히 해명되기

어려운 것일 수밖에 없다.

특히 영화에 대한 공감의 요인을 확정하는 데 있어서 관객의 신체적이고 물리적 조건(즉, 젠더, 인종, 국적)이 영화의 내러티브를 수용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방향으로든 기여하고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학술적 기대감은 항상 존재해 왔으나[5] 아직까지 이러한 결과들이 실제로 확인된 바는 없다. 영화 외적인 요인에 대한 관객 설문조사와 달리, 영화 내적인 요인에 대한 관객 설문조사는 설문지 항목의 구성에서부터 매우 까다로운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이다. 게다가 가설의 수립을 중심으로 통계자료를 통해 이를 기각하거나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사회과학의 전반적인 연구 경향에 비해 영화의 내용적 요인에 대한 접근은 영화의 내러티브적 맥락과 관객의 응답 및 물리적 조건들을 종합하여 결론을 내려야 하는 해석학적 모델에 가깝다. 즉 로맨틱 코미디의 연애 서사가 각각 다른 국적과 다른 젠더, 다른 연령대의 관객이 갖고 있을 각각 다른 사랑에 대한 판타지를 어떻게 충족시키는가 하는 것은 영화의 내용과 관객을 텍스트로 간주하여, 관객 설문조사를 통한 관객에 대한 이해와 영화의 스토리상의 내용에 대한 순환적인 이해를 통하지 않고서는 영화와 관객의 수용 양상에 대한 올바른 이해에 다가가기 어렵다는 것이다.

2. 연구 범위 및 방법

본 논문은 2009년 미국에서 만들어진 로맨틱 코미디 영화 <프로포즈>를 대상 영화로 한다. <프로포즈>는 기존 로맨틱 코미디 영화의 장르적 관습을 계승하면서도 이를 새로운 구도 속에서 변주하고 있는 영화로, 기존의 장르적 전형과 새로운 경향을 동시에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연구의 대상으로 선정되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관객의 국적별, 젠더별, 연령별 스토리 수용의 차이를 파악하기 위한 시도로 한국과 미국 관객들을 대상으로 영화의 내용을 중심으로 조직된 설문 조사를 주된 연구방법으로 채택하였다. 특히 영화의 스토리에 대한 분석을 선행하여 응답자에 대한 일종의 제시자극의 분석으로 삼았고, 이러한 분석을 통해 <프로포즈>가 기존 로맨틱 코미디 영화의 전형적인 구도를 얼마나

답습하거나 벗어나고 있는가 하는 바를 밝히고, 이 영화에 있어서 관객들이 수용 양상의 차이를 드러낼 수 있는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장면들과 그것에 결부되는 가치들을 추출해내어 설문조사 문항으로 결정하였다. 여기에서는 로맨틱 코미디라는 영화 장르상의 관습적인 형식에 대한 기존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영화의 스토리에 대한 내러티브 분석을 행하였으며, 이를 통해 이 영화의 스토리 상의 가장 중요한 결정 요인들을 배우(Actor)/인물(Character), 플롯 상에 있어서 결혼식 장면/프로포즈 장면으로 확정하였다. 한편 가치의 경우, 주로 인간의 보편적인 동기 추동으로서의 가치에 대해 연구해왔던 학자인 Shalom H. Schwartz의 가치 범주 [6]를 중심으로 영화 속에서 두드러지게 등장하는 가치들을 중심으로 다소의 가공을 통해 설문 문항으로 구성하였는데 주로 이 영화에서는 ‘이성과의 진실한 사랑’, ‘신을 지키’, ‘가족에 대한 사랑’이라는 가치가 주로 나타난다고 보고 이러한 가치들을 설문 문항으로 반영하였다.

II. 영화 <프로포즈>에 대한 내용적 분석

1. 배우(actor)와 인물(character)

로맨틱 코미디 영화 장르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남녀 주인공역을 맡은 배우 자체가 갖는 매력이다. 다른 영화 장르와 달리 남녀 간의 사랑 외에 별다른 스펙타클이나 영화적 상상력을 드러내기 쉽지 않은 로맨틱 코미디의 특성 상, 로맨틱 코미디 영화는 결국 남녀 주인공의 사랑을 찾아가는 과정을 핵심적인 서사로 삼고 있기 때문에 로맨틱 코미디에서는 무엇보다도 주연으로 출연하는 남녀 배우의 매력이 무엇보다도 중시되는 경향이 있다. 오드리 헵번이나 맥 라이언, 줄리엣 로버츠 등 기존에 시대적으로 로맨틱 코미디 장르를 대표하는 배우, 특히 여성 배우인 히로인들의 역할이나 위상이 강조되어 드러나는 경우가 많았던 것은 바로 이러한 까닭이다. 비록 최근 로맨틱 코미디 장르의 영화의 경우, 예전처럼 로맨틱 코미디를 대표할 만한 히로인들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있으며 여성 배우들이 다양한 역할

을 맡는 가운데 로맨틱 코미디 장르에서도 나름의 영역을 구축하는 경향이 뚜렷해지긴 했지만 로맨틱 코미디 장르에 있어서 주연을 맡은 배우와 캐릭터의 성격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은 부인하기 어렵다.



그림 1. 영화 <프로포즈>의 포스터

영화 <프로포즈>의 히로인은 산드라 블록(Sandra Bullock)이다. 산드라 블록은 Hersey가 할리우드에서 여성 영화 제작자와 작가들이 늘어나고 있는 징후로 파악했던 4명의 여배우(드류 베리모어, 앤 헤서웨이, 리즈 위더스푼) 중 한 명이다[7]. 이들은 처녀/성녀 혹은 팜프과탈의 이분법으로 규정될 수 있었던 과거 로맨틱 필름의 히로인들과는 달리, 새로운 섹슈얼리티의 영역을 개척하였으며, 남성의 성적 욕망에 의해 좌지우지되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의 관계를 찾아나가는 자립적인 여성 주인공 유형을 구축한 여배우들로 평가되고 있다. 이러한 그들의 이미지는 그들이 찍었던 기존의 영화들을 통해 형성된 것이면서 반복되어 강화되어 왔다. 산드라 블록은 <스피드Speed(1994)>에서 혈령한 옷을 입고 거친 말투를 구사하면서 다소 중성적인 매력으로 각인되었다가 이후 <당신이 잠든 동안에While You Were Sleeping(1995)>라든가 <러브앤워In Love and War(1996)>등의 로맨틱 코미디 혹은 드라마 등의 영화에서 이미지 변화를 꾀하였다. 하지만 산드라 블록은 큼직큼직한 이목구비와 다소 거친 듯한 말투로 인해, 행동에 거침이 없는 터프걸의 이미지를 벗어나지

못하였고 이후 주연으로 찍었던 <미스 에이전트Miss Congeniality(2000)>나 <투 위크 노트리스Two Weeks Notice(2002)> 등에서는 자신의 이러한 이미지를 굳이 바꾸기보다는 최대한 활용하여 절충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산드라 블록의 2009년 영화 <프로포즈>는 최근 로맨틱 코미디에서 달라진 여성 주인공의 위상 변화와 산드라 블록이 기존에 구축한 이미지를 활용하여 로맨틱 코미디의 정석적인 형식에서 다소 변주하여 남녀 주인공 간의 권력적 우위를 재설정하고 있는 영화이다. 지금까지의 로맨틱 코미디 영화에서 여성의 자립성을 강조하는 경우는 많았지만, 남녀의 역전적인 관계를 강조하는 사례는 드물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 영화 속에서 하나의 사회로서의 기업 내에서 권력적으로 상위에 있는 여성과 그 부하직원인 남성 사이의 로맨스를 그려내고 있는 구도는 분명 독특하고도 새로운 시도가 아닐 수 없다. 이 영화에서 산드라 블록은 지금까지의 자신의 이미지를 보다 끝까지 밀어붙여 자신에게 닥친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자신의 사회적 관계에서의 자신이 가진 권력(power)을 활용하여 부하 직원에게 위장결혼을 강요하는 출판사 편집장인 ‘마가렛 테이트(Margaret Tate)’의 역할을 맡았다.

한편 남자 주인공을 맡은 라이언 레이놀즈(Ryan Reynolds)의 경우, <프로포즈> 이전에는 코미디 영화인 <저스트 프렌드Just Friends(2005)>에 주연을 맡아 기대를 받았고 <나의 특별한 사랑이야기Definitely, Maybe(2008)> 등의 영화에 출연하여 주로 평범한 미국의 백인 남성을 연상시키는 부드럽고 따뜻한 이미지를 구축하고 있는 배우이다. 이 영화에서는 이 배우가 갖고 있는 이러한 이미지를 최대한 활용하여 알래스카 출신으로 미국으로 건너와 출판사에 일하면서 미모의 여성 상사의 위장결혼이라는 다소 정상에서 벗어난 무리한 요구에 마지못해 따라가는 우유부단한 성격의 앤드루 팩스턴(Andrew Paxton) 역할을 맡았다. 영화 <프로포즈>는 이와 같은 남녀 두 배우를 중심으로 벌어지는 로맨스를 담고 있다.

2. 결혼식(wedding ceremony)과 프로포즈(propose)

대부분의 로맨틱 코미디 영화에 있어서 결혼식은 스토리상의 일종의 목표(goal)로 제시되기 마련이다. 이렇게 결혼식이 로맨틱 코미디 영화의 엔딩부분에 등장하는 관습(convention)으로 확립된 것은 결혼이 이른바 사랑의 완성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인식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최근 영화에서는 그러한 굳어진 관습을 깨고 결혼식을 사랑의 완성이 아닌 또 다른 계기로 삼는 일종의 변주의 경향성이 자주 드러나고 있다. 예를 들어 인기 TV쇼로 영화화되었던 영화 <섹스앤더시티 Sex and the City(2008)>에서 결혼식 장면은 2번 등장하는데 첫 번째 결혼은 결혼에 대한 환상으로 가득 차 있던 캐리(사라 제시카 파커)으로 하여금 현실에 더욱 집중하도록 하는 계기가 되어 삶의 실제에 접근하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소재로 등장하고 있으며, 두 번째 결혼식은 시청에서의 소박한 결혼식으로 결혼식의 외적인 화려함 보다는 결혼의 의미를 되새기라는 영화의 메시지를 반영하는 것이다. 즉 이 영화는 할리우드의 로맨틱 코미디 관습인 결혼식 장면을 변주하고는 있으나 그로부터 크게 벗어나지는 않고 있으며 첫 번째 결혼식을 하나의 깨달음의 계기로 활용하고, 두 번째 결혼식을 통해 사랑의 완성이라는 로맨틱 코미디의 관습적 공식으로 회귀하고 있는 것이다.



그림 2. 영화 <프로포즈> 중 ‘결혼식’ 장면

영화 <프로포즈>에서도 마찬가지로 결혼식 장면은 단지 로맨틱 코미디 영화의 일반적인 관습처럼 결말부분에 해당하는 사랑의 완성으로 제시되지 않는다. 이 영화의 결혼식장에서 주인공인 ‘마가렛’은 앤드류의 가족에 대한 사랑과 신의 때문에 이 결혼이 ‘마가렛’이 국

외로 추방되지 않기 위해서 ‘앤드류’를 강요하여 꾸민 속임수로 위장된 것임을 밝히고 용서를 구한 뒤, 결혼식을 중지한다.

영화 <프로포즈>의 마지막 대단원은 결혼식이 아니라 공개적인 프로포즈로 끝난다. 과묵으로 끝난 결혼식 이후, 남자 주인공인 앤드루는 마가렛의 사무실에 찾아가 회사의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프로포즈를 하는 것이다. 이 장면은 앞서의 결혼식 장면이 위장된 것이 아닌 진실한 사랑이나 신의, 가족에 등의 가치를 표현하는 것이었다면, 모든 위기와 난관에도 불구하고 문제 해결을 위하여 진실한 사랑의 고백이 중요하다는 로맨틱 코미디의 또 다른 엔딩의 전형에 해당한다. 다만, 이 공개적인 프로포즈, 특히 자신이 늘 일하는 사무실 내에서 동료직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프로포즈는 사랑의 공인(certification of love)이라는 관점이 있어서 효과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장면이지만, 서구 문화에 있어서도 그리 익숙한 것은 아니며, 관객의 감정이입 여부에 따라서 다소 불편함을 일으킬 수도 있다.



그림 3. 영화 <프로포즈> 중 ‘공개 프로포즈’ 장면

III. 영화 <프로포즈>의 관객 반응

1. 설문 설계 및 방법(METHOD)

본 논문에서 이용된 관객 설문지는 단국대학교 산학협력단 산하 ‘스토리에 기반한 글로벌 문화코드 기술 개발 연구’ 프로젝트 팀에서 분석된 영화의 서사와 문화에 대한 분석 결과에 기반하여 작성되었다. 영화 <프로포즈>에 대해 미국의 문화를 가장 잘 드러내는 장면

을 16개 추출하였고 이 장면들을 기반으로 설문 문항을 작성하여 한국과 미국 관객이 영화 속에 재현된 미국의 문화에 대해 어떠한 인상을 받았는가 하는 결과를 확인해보았다. 설문 문항의 경우, 응답자의 기본 성향을 파악하기 위한 질문들 외에 영화적 요소(6문항), 서사적 요소(35문항), 문화적 요소(34문항) 등 영화의 스토리에 관한 질문 항목들로 구성되었으며, 주로 해당 항목에 대한 인상(impression) 정도를 5점 척도로 확인하였다.

특히 본 논문에서는 II장에서 분석된 <프로포즈>를 통해 제시된 대표적인 로맨틱 코미디 특징들이 실제로 한국과 미국의 관객들에게 어떠한 반응을 일으켰는가 하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코딩된 설문조사 결과 데이터의 항목들 중에서 배우(Actor), 인물(Character), 인물의 외모(Good Looking), 인물의 성격(Personality of the Character), 결혼식 장면(Wedding Scene), 프로포즈(Confession, Propose), 이성과의 진실한 사랑(Fall in Love with a different Gender (True Love)), 가족에 대한 사랑(Love in Household), 신의를 지킴(Keeping Promises (Belief and Faith, acting as what he/she promised)), 문제 해결에는 개인의 의지가 중요하다(Problem solving requires a human's free will.), 운명은 극복될 수 있다(Destiny(deprived environment, obstacles) can be overcome.) 등의 항목에 대한 설문 결과를 중심으로 ‘한국/미국’, ‘남성/여성’, ‘만 18세-29세/만 30-39세/만 40세 이상’이라는 분류 카테고리를 중심으로 하여, 해당하는 그룹이 항목들에 대해 나타낸 인상 정도에 대한 기술 통계와 각 항목들 간의 상관도 분석을 중심으로 사용하였다. 한국 관객에 대한 설문조사의 경우 온라인으로 진행되었으며, 미국의 경우, 플로리다 대학(Florida State University)을 중심으로 인구 비례에 맞게 인종, 성별을 구성하여 직접 설문지를 표집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설문에 참여한 응답자들의 국적별, 성별, 연령별 구성인원은 [표 1]과 같았다. 또한 한국인 관객들만을 대상으로 ‘영화 “프로포즈(The Proposal)”가 실제 한국 사회 문화/정서와 어느 정도 비슷하다고 생각하십니까?’의 항목을 물어보았는데 이 결과는 평균 2.66(5점 만점, 표준편차 0.91)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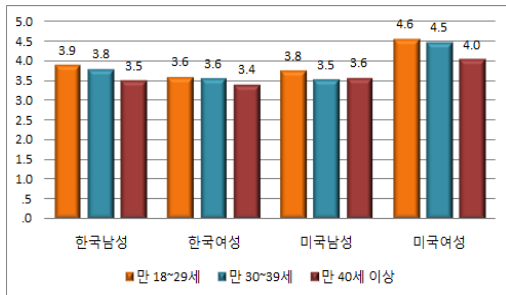
표 1.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국적별	성별	연령별	n	%
한국	남성	만 18-29세	20	40
		만 30-39세	20	40
		만 40세 이상	10	20
	여성	만 18-29세	20	40
		만 30-39세	20	40
		만 40세 이상	10	20
미국	남성	만 18-29세	25	33.8
		만 30-39세	23	37.8
		만 40세 이상	21	28.4
	여성	만 18-29세	34	33.3
		만 30-39세	40	39.2
		만 40세 이상	23	27.5

2. 결과(RESULTS)

2.1 배우(actor)와 인물(charac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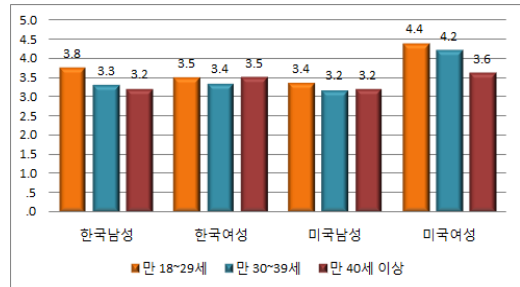
표 2. 배우(actor)에 대한 관객의 인상정도



위의 표는 한국과 미국에서 관객들이 영화 <프로포즈>의 ‘배우(Actor)’와 ‘인물(Character)’에 대해 받은 인상의 정도를 알려주고 있다. 배우나 인물에 대해서는 미국의 특히 젊은 여성관객들이 전폭적인 지지를 보이고 있는 경향이 두드러진다. 역시 전반적으로 젊은 층들이 배우와 인물에 대한 인상 정도를 주도했다. 특히 이 영화의 주인공이 산드라 블록임을 감안한다면, 그에 대한 이미지가 미국의 여성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하지만 한국의 여성들에게 이 영화의 배우는 비교적 깊은 인상을 남기지 못했다. 오히려 한국의 남성들 중 젊은 계층에서 이 영화의 배우에 대해서 깊은 인상을 보였다. 여배우인 산드라 블록이 오밀조밀하게 생긴 동양인 여성이 바랄 만한 외모

가 아니라 이목구비가 큼직큼직한 서구형의 외모를 갖고 있다는 사실이나 남배우인 라이언 레이놀즈가 큰 특징 없이 부드러운 인상의 소유자라는 사실이 이러한 결과에 대한 설명이 될 수 있다. 이 영화의 출연한 배우들은 미국의 경우와는 정반대로 한국인 여성보다는 남성들이 선호할 만한 점들을 갖추고 있다는 것이다.

표 3. 인물(character)에 대한 관객의 인상정도



한편, 위의 표는 인물에 대한 관객 선호도의 결과이다. 이 결과는 앞서 배우에 대한 결과와는 상이한 지점이 드러난다. 전반적으로 연령층이 높은 그룹들에서 배우보다는 인물에 대한 인상이 낮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인 가운데, 한국의 여성들은 그 낙폭이 눈에 띄게 적은 경향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한국 여성 40세 이상의 그룹들은 배우 항목 보다 인물의 항목에 약간이나마 더 높은 점수를 주고 있다. 앞서 한국의 여성들이 배우에 대해서 비교적 낮은 인상 정도를 표시했던 것에 비한다면, 영화 속에 드러난 인물에 대해서는 전체에 비해 인상적이라고 답하고 있는 것이다. 이 영화 속에서 등장인물들이 전통적인 남녀 관계의 역할을 재현하고 있다기보다는 사회적인 위치나 권력에 있어서 역전된 관계성을 표현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특히 40세 이상의 연령을 갖고 있는 그룹에 있어서 배우 항목 보다 인물의 항목에 보다 낮은 인상 정도가 나타나고 있는 것은 연령층이 높아질수록 남녀 젠더 역할에 대한 보수화 경향이 드러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한국인 여성에게 있어서는 이러한 경향과 반대되는 경향이 드러나고 있는 것은 흥미롭지 않을 수 없다.

표 4. 인물(character)의 외모에 대한 관객의 인상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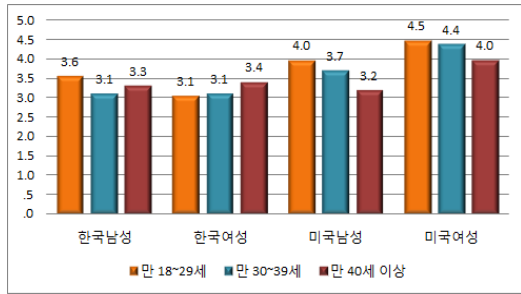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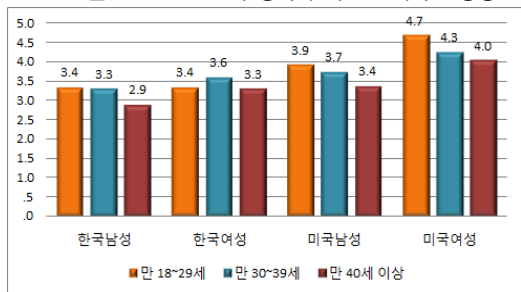


표 5. 인물(character)의 성격에 대한 관객의 인상정도



[표 4]와 [표 5]의 결과들은 인물(Character) 영역에 대한 좀 더 세부적인 응답 결과들을 보여주고 있다. [표 4]은 ‘인물의 외모’에 대한 질문 문항에 대한 답변 결과이며, [표 5]은 ‘인물의 성격’에 대한 질문 문항에 대한 답변 결과이다. 이 결과를 보면 앞서 한국인 여성 40세 이상의 관객 그룹에서 인물에 대해 높은 인상 정도가 나타났던 원인을 파악할 수 있다. 비록 대동소이하나, 한국인 여성 40세 이상의 그룹들은 인물의 성격보다는 외모에 더 높은 점수를 주고 있는 것이다. 이는 한국인 여성 다른 연령 계층 결과와 배치되는 결과이다. 즉 한국인 여성 40세 이상은 이 영화의 등장인물이 보여주는 내적인 자질보다는 외적 자질에 높은 인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들은 이 영화 속에서 자신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남성 부하직원을 이용하는 마가렛(산드라 블록)의 성격에 깊은 인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외모(얼굴이나 몸매, 옷차림)에 깊은 인상을 받았던 것이다.

또한 미국인 관객들이 비교적 영화 속 등장인물의 외모 보다는 성격에 깊은 인상을 받고 있는 데 비해, 한국인 관객들은 반대의 경향이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 역시

흥미롭다. 미국인 관객의 경우, 배우에 대한 인상 보다 인물에 대한 인상이 훨씬 낮은 남성 관객들조차 인물의 외모와 성격에 대해 비교적 고른 인상 정도를 나타내고 있는 데 비해 한국인들은 성별이나 연령별의 구분을 막론하고 인물의 성격 보다는 외모에 높은 인상을 보이는 경향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이는 한국인 관객들이 이 영화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성격에 대해 납득하지 못하는 지점들이 존재한다는 의미이다.

표 6. 배우 항목과 가치(values) 사이의 상관성

국적	성별	연령별	Pearson correlation		
			이성과의 진실한 사랑	신을 지킴	가족에 대한 사랑
한국	남성	만 18-29세	.630**	.295	.155
		만 30-39세	.146	.388	.081
		만 40세이상	.447	.302	.557
한국	여성	만 18-29세	.584**	.089	.331
		만 30-39세	-.006	.389	.129
		만 40세이상	-.424	.136	.086
미국	남성	만 18-29세	.516**	.489*	.535**
		만 30-39세	.799**	.306	.536**
		만 40세이상	.490*	.523*	.463*
미국	여성	만 18-29세	.728**	.798**	.673**
		만 30-39세	.568**	.506**	.581**
		만 40세이상	.761**	.693**	.778**

* $p < .05$, ** $p < .01$

위의 [표 6]는 이 영화 속의 ‘배우’와 영화 속에 등장하는 주요한 가치들인 ‘이성과의 진실한 사랑’, ‘신을 지킴’, ‘가족에 대한 사랑’의 항목과의 상관성 결과를 알려주는 표이다. 이 결과를 통해 본다면 한국인과 미국인 관객들이 영화 속 배우와 인물들과 영화 속에 드러나고 있는 어떤 가치들을 결부시키고 있는가 하는 바를 확인할 수 있다. [표 6]의 결과로 볼 때, 한국인 관객 보다는 미국인 관객들이 이 영화에 출연한 배우와 가치들 사이의 높은 상관성을 드러내고 있는 뚜렷한 경향이 드러난다. 다만, 한국의 낮은 연령대(만18-29세)의 관객들은 배우와 이성과의 진실한 사랑이라는 가치를 결부시키는 경향이 높게 드러나고 있으며, 한국의 높은 연령대의 남성들은 영화 속 배우와 ‘가족에 대한 사랑’을 결부시키는 경향이 어느 정도 드러나고 있다. 즉 한국의 남녀 관객들 중 비교적 낮은 연령대의 관객들은 이 영화의 배우인 산드라 블록과 라이언 레인놀즈가 이 영화에서 로맨스의 중심을 담당하고 있는 것에 대해 납득하

고 있지만, 신의를 지킨다든가, 가족에 대한 사랑을 드러낸다든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비교적 납득하지 못하고 있으며, 오직 한국의 남성 중 만 40세 이상의 그룹만이 오차 범위 밖에서 이 영화의 배우들이 가족에 대한 사랑이라는 가치를 드러내는 데 적합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표 7. 인물(Character)의 외모와 가치(values) 사이의 상관성

국적	성별	연령별	Pearson correlation		
			이성과의 진실한 사랑	신의를 지킴	가족에 대한 사랑
한국	남성	만 18-29세	.476*	.41	-.124
		만 30-39세	.106	.399	.364
		만 40세이상	.815**	.283	.377
	여성	만 18-29세	.610**	.11	.370
		만 30-39세	-.232	-.065	-.549*
		만 40세이상	-.429	.384	.056
미국	남성	만 18-29세	.309	.496*	.286
		만 30-39세	.614**	.527**	.657**
		만 40세이상	.697**	.707**	.875**
	여성	만 18-29세	.763**	.661**	.508**
		만 30-39세	.444**	.357*	.524**
		만 40세이상	.773**	.867**	.767**

* $p < .05$, ** $p < .01$

표 8. 인물(Character)의 성격과 가치(values) 사이의 상관성

국적	성별	연령별	Pearson correlation		
			이성과의 진실한 사랑	신의를 지킴	가족에 대한 사랑
한국	남성	만 18-29세	.476*	.41	-.124
		만 30-39세	.106	.399	.364
		만 40세이상	.815**	.283	.377
	여성	만 18-29세	.610**	.11	.370
		만 30-39세	-.232	-.065	-.549*
		만 40세이상	-.429	.384	.056
미국	남성	만 18-29세	.309	.496*	.286
		만 30-39세	.614**	.527**	.657**
		만 40세이상	.697**	.707**	.875**
	여성	만 18-29세	.763**	.661**	.508**
		만 30-39세	.444**	.357*	.524**
		만 40세이상	.773**	.867**	.767**

* $p < .05$, ** $p < .01$

한편, [표 7]과 [표 8]은 각각 영화 속에 등장하는 ‘인물의 외모, 성격’과 영화에 주로 등장하는 가치들 사이의 상관도를 분석한 결과이다. 이 결과는 단순한 선호도 결과나 배우와 영화 속에 등장하는 주된 가치와의 상관성 결과와는 달리 관객이 영화 속 스토리상에서 인물 추구하는 가치와 그에 대한 동기추동(motivation) 여부를 잘 이해하고 그에 공감하고 있다는 의미로, 영화 속 스토리에 대한 관객의 공감 내용에 대해 중요한 해석적 지표로 이용될 수 있다.

위의 결과를 통해 본다면, 영화 속 ‘배우’에 대한 결과와 마찬가지로 한국인 관객보다는 미국인 관객들이 영화 속 인물의 외모, 성격과 영화 속의 가치들에 대해 높은 상관성을 부여하고 있다. 즉 한국인 관객 보다는 미국인 관객들이 영화 속에서 표현된 등장인물의 외모나 성격 속에서 사랑이나 신의, 가족에 등의 가치들을 찾아내고자 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결국 이러한 경향은 기본적으로 한국인과 미국인 사이에 존재하는 배우와 인물의 영화 속 성격함에 대한 인상의 구축 정도의 차이에 기반한 영화 속 스토리에 대한 감정이입 정도의 차이로 설명될 수 있다.

한편, 한국인의 경우, 남성은 만 40세 이상, 여성은 만 18-29세의 그룹만이 영화 속 등장인물의 외모, 성격과 ‘이성과의 진실한 사랑’이라는 가치를 결부시키는 경향이 어느 정도 드러났을 뿐, 나머지 그룹들은 영화 속 캐릭터의 외모나 성격과 여타의 가치들을 결부시키는 경향이 의미하게 드러나지 않았다. 반면에 미국인 관객들 중, 남성은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영화 속 등장인물의 외모, 성격과 대부분의 가치들을 결부시키는 경향이 높아졌는데 특히 등장인물의 외모와 가족에 대한 사랑이라는 가치에 대해서 결부시키는 경향이 높게 나타났다. 미국인 여성 관객의 경우, 실제로 최근의 결혼 적령기라고 볼 수 있는 만 30-39세의 그룹만이 영화 속 등장인물의 외모, 성격과 가치들을 연관시키는 경향이 낮게 나타났을 뿐, 전반적으로 만 18-29세 그룹의 경우, 등장인물의 외모, 성격과 이성과의 진실한 사랑, 신의를 지킴이라는 가치를, 만 40세 이상 그룹의 경우, 등장인물의 외모, 성격과 대부분의 가치들을 높게 연관시키는 경향이 드러났다.

2.2 결혼식(wedding ceremony)과 프로포즈(propose)

표 9. 결혼식 장면에 대한 관객의 인상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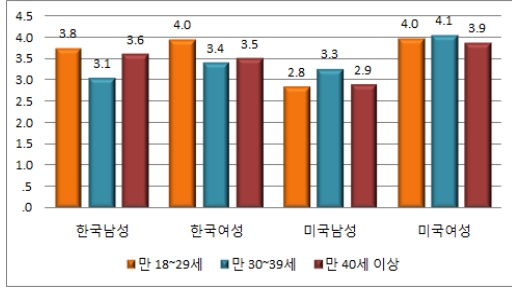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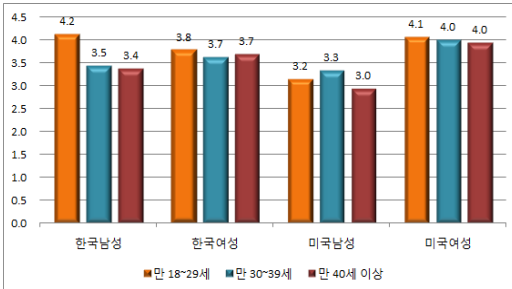


표 10. 프로포즈 장면에 대한 관객의 인상정도



한편, 영화 <프로포즈>에 나타난 '결혼식'과 '프로포즈'에 대한 한국인과 미국인 관객의 반응은 어떠했을까. 앞서 영화의 내용적 분석을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영화에서 '결혼식'은 일반적인 로맨틱 코미디의 전형과는 달리, 사랑의 완성이 아니라 그동안 자신을 위해서 위장결혼을 남성 부하직원에게 강요하는 헤프닝을 벌였던 마가렛이 앤드루 팩스턴에 대한 진정한 사랑과 그의 가족들과의 경험을 통해 형성된 가족애 등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위장결혼을 고백하면서 파국을 맞는 영화의 스토리에 있어서는 대단히 중요한 장면에 해당한다. 또한 이 장면은 감정이입 여부에 따라서는 결혼 적령기의 특히 남성에게 불편함을 일으킬 수도 있다. 결혼식장에서 배우자가 돌연 선언을 하면서 결혼을 망칠 수도 있다는 공포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결혼식 장면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에 있어서 미국 남성 관객의 조사 결과가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러한 공포가 반영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반

면, 한국 남성 관객의 경우, 이 결혼식 장면에 대한 인상 정도가 높지 않지만 낮다고 보기도 어렵다. 즉 한국 남성의 경우, 이러한 결혼식에 대한 공포를 자신의 일처럼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이다. 이 두 케이스의 차이는 영화 속 상황을 자신의 일처럼 받아들이느냐 하는 감정이입의 문제를 제외하고서는 의미 있게 설명되기 어렵다.

또한 '프로포즈'에 대한 결과 역시 마찬가지이다. 미국 남성의 경우, '결혼식' 보다는 높은 수치로 인상 정도를 표시하였지만, 여전히 다른 그룹 대비 최저의 인상 정도를 기록하고 있다. 반면에 여성들의 경우에는 둘 사이의 변화가 거의 감지되지 않는다. 자신이 근무하던 사무실에서 공개적인 프로포즈를 하거나 받는 것은 미국인들에게 있어서 주로 여성이 그리는 판타지이지, 남성의 환상은 아니었다는 것이다.

표 11. 결혼식 장면과 가치(values) 사이의 상관성

국적	성별	연령별	Pearson correlation		
			이성과의 진실한 사랑	신의를 지킴	가족에 대한 사랑
한국	남성	만 18-29세	.415	.430	.423
		만 30-39세	.167	.295	-.067
		만 40세이상	.609	.431	.227
한국	여성	만 18-29세	.537*	.304	.416
		만 30-39세	.460*	.641**	.431
		만 40세이상	-.210	-.135	-.192
미국	남성	만 18-29세	.431*	.451*	.672**
		만 30-39세	.730**	.244	.677**
		만 40세이상	.754**	.900**	.838**
미국	여성	만 18-29세	.636**	.676**	.505**
		만 30-39세	.632**	.521**	.659**
		만 40세이상	.539**	.685**	.652**

* α .05, ** α .01

표 12. 프로포즈 장면과 가치(values) 사이의 상관성

국적	성별	연령별	Pearson correlation		
			이성과의 진실한 사랑	신의를 지킴	가족에 대한 사랑
한국	남성	만 18-29세	.521*	.124	.331
		만 30-39세	.554*	.518*	.386
		만 40세이상	.609	.185	.152
한국	여성	만 18-29세	.518**	.636**	.647**
		만 30-39세	.687**	.287	.540**
		만 40세이상	.751**	.787**	.840**
미국	남성	만 18-29세	.455*	.436	.433
		만 30-39세	.333	.499*	.206
		만 40세이상	-.180	-.039	-.238
미국	여성	만 18-29세	.645**	.689**	.519**
		만 30-39세	.716**	.474**	.674**
		만 40세이상	.750**	.764**	.805**

* α .05, ** α .01

그렇다면, 이 영화에서 ‘결혼식 장면’과 ‘프로포즈’는 주로 어떠한 가치와 관련되어 있을까. [표 11]의 결과는 ‘결혼식 장면’이 어떤 가치들과 결부되어 있는가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미국의 남성의 경우, 이 결혼식 장면을 한편으로는 ‘이성과의 진실한 사랑’이라는 가치와 연관시키는 동시에, 전 연령에 걸쳐 ‘가족에 대한 사랑’이라는 가치와 연관시키고 있는 경향이 현저하게 드러나고 있다. 즉 마가렛의 파혼 선언을 상대역인 앤드루에 대한 사랑에서 비롯되었다고 보는 한편, 주로 가족에 대한 사랑 때문이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여성의 경우, 이와는 달리 연령에 따라서 극화된 경향이 나타난다. 낮은 연령층의 경우, 이를 진실한 사랑이나 신의의 문제로 접근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 높은 연령층의 경우에는 이 결혼식 장면을 가족애와 신의의 문제로 접근하는 경향이 있는 것이다.

한편, 영화 속에 나타난 ‘프로포즈’ 항목과 영화 속의 가치들 사이의 상관성을 확인한 [표 12]의 결과를 보면 이 영화 속에 등장하는 <프로포즈>가 누구의 판타지를 충족시키고 있는 것인가 하는 문제가 확연하게 드러난다. 한국과 미국에서 공통적으로 여성 관객들이 이 ‘프로포즈’와 ‘이성에 대한 진실한 사랑’이라는 가치를 연관시키는 경향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물론 만 40세 이상의 그룹의 경우, 신의를 지키는 문제나 가족에 대한 사랑을 드러내는 장면의 연관성이 더 높게 나타났지만, 이성에 대한 사랑과의 연관성 역시 낮은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즉 이 영화에서 앤드루가 사무실로 찾아와 프로포즈하는 장면은 기본적으로는 한국과 미국의 여성 관객들에게는 이성과의 사랑의 성취로 이해되었으며, 특히 주로 높은 연령층을 대상으로는 상대방에 대한 신의를 지켰으며, 가족에 대한 사랑을 배신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안도감을 느끼게 하였다는 것이다. 반면에 남성들의 경우에는 젊은 층을 제외하고서는 이 ‘프로포즈’와 여타의 가치를 결부시키는 경향이 잘 드러나지 않았다. 남성들의 입장에서 이 ‘프로포즈’는 그다지 의미 있는 가치를 드러내는 행위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IV. 결론

본 논문은 미국에서 2009년에 제작된 로맨틱 코미디 영화 <프로포즈>를 중심으로 영화의 스토리 수용 양상이 국적별, 젠더별, 연령별로 각각 어떻게 다른 양상으로 드러나고 있는가 하는 바를 밝히고자 하였다. 특히 로맨틱 코미디 장르의 대표적인 일반적인 관습으로 간주되기 마련인 남녀 배우와 작중 인물에 대한 인상 정도의 차이와 사랑의 완성으로서의 ‘결혼식’과 이 영화에서 대단원으로 제시된 ‘공개적인 프로포즈’에 대해 관객의 물리적인 조건에 따라 어떤 수용적 차이가 나타나고 있는가 하는 바를 관객 설문조사 상에 나타난 개별적인 항목에 대한 인상 정도와 그러한 항목들을 각각 어떠한 가치들과 상관적으로 연관시키고 있는가 하는 상관도 분석을 중심으로 파악하였다.

이상의 결과를 통하여, 한국 관객과 미국 관객 사이에서나 남성 여성 관객 사이, 연령별 관객 사이에서 영화 스토리 수용이나 감정이입(혹은 공감)에 있어서 뚜렷한 내용적 차이가 나타났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성과이다. 특히 미국 남성 관객의 경우, 여주인공의 고백에 의해 파괴된 ‘결혼식 장면’이나 공개적인 장소에서 이루어진 ‘프로포즈’ 등에 대한 거부감이 높게 나타났던 것은 미국의 남성 관객이 영화 속의 남성 인물의 입장에 감정이입한 것이 아니고서는 설명하기 어렵다. 이와는 반대로 한국 남성 관객의 경우, 연령대가 낮을수록 이러한 내용에 대해 거부감 없이 높은 인상을 받았던 것은 감정이입 없이 마치 외부에서 관람하듯 지켜보았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실제로 해당하는 내용 요소에 대한 인상 정도는 수치 상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세부적인 양상은 완전히 달랐던 것이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통해, 기존 영화의 내러티브와 관객의 수용 양상에 대한 분석에서 감정이입의 연령별, 젠더별, 연령별 차이가 존재하리라는 막연한 믿음을 설문 조사를 통한 통계적인 분석을 통해 해석할 수 있었던 것은 본 논문이 갖고 있는 의의로 생각된다. 이후, 영화의 내러티브와 관객들의 수용 양상에 대한 더욱 효과적인 연구 모델을 정립하는 것을 차후의 과제로 삼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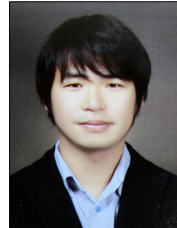
참고 문헌

- [1] J. Harvey, *Romantic comedy in Hollywood from Lubitsch to Sturges*, New York : Da Capo Press, 1998.
- [2] S. V. Duncan, *Genre screenwriting : How to Write Popular Screenplays That Sell*, New York & London : The Continuum International Publishing Group Ltd., pp.167-169, 2008.
- [3] K. R. Johnson and B. M. Holmes, "Contradictory messages : A content analysis of Hollywood-produced romantic comedy feature films," *Communication Quarterly*, Vol.57, pp.358-368, 2009.
- [4] 닐슨(Nielson)의 2008년 영화 관객 통계 자료를 보면 영화 관람객들 중 여성이 가장 선호하는 장르는 로맨틱 코미디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그러한 선택에 어떠한 젠더적인 영향이나 가치가 개입되어 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충분히 해명되지 못하고 있다.
- [5] V. Hefner, "From love at first sight to soul mate: Romantic ideals in popular films and their association with young people's beliefs about relationships,"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Illinois at Urbana-Champaign, pp.20-134, 2011.
- [6] S. H. Schwartz, "Universals in the content and structure of values theoretical advances and empirical test in 20 countries," in M. Zanna(Ed.),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Orlando, FL : Academic, Vol.25, pp.1-65, 1992.
- [7] E. Hersey, "Love and Microphones: Romantic Comedy Heroines as Public Speakers," *Journal of Popular Film and Television*, Heldref Publications, Vol.34, No.4, pp.148-159, 2007.

저자 소개

송민호(Minho Song)

정회원



- 2002년 2월 :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석사(문학석사)
 - 2012년 8월 :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문학박사)
 - 2011년 3월 ~ 현재 : 단국대학교 스토리텔링연구센터 연구원
- <관심분야> : 영화 서사학, 스토리 가치 평가

엄종희(Chonghee Youm)

정회원



- 2005년 10월 : 캐나다 요크대학교 필름&비디오 프로덕션과(학사)
- 2010년 5월 : 뉴욕 콜럼비아대학교 예술학(연출전공)석사(MFA)

▪ 2011년 3월 ~ 현재 : 단국대학교 스토리텔링연구센터 연구원

<관심분야> : 영화 및 미디어 콘텐츠 기획 제작

우정권(Jeonggueon Woo)

정회원



- 2002년 8월 :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문학박사)
- 2005년 9월 ~ 현재 : 단국대학교 교수(영화콘텐츠전문대학원)
- 2009년 3월 ~ 현재 : 단국대학교 스토리텔링연구센터 센터장

<관심분야> : 미디어스토리텔링, 스토리 가치 평가